금요 양성 5월 23일 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.

성 프란시스의 잔 꽃송이 *(FA:ED= 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)*

(아래의 배경 설명에 관한 인용은 프란치스칸 지성 전통 웹사이트에 나오는 **잔 꽃송이**의 훨씬 더 긴 서문에서 발췌되었다. 언급된 모든 장과 더불어 더 많은 내용을 같은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.)

"**잔 꽃송이**"에 대하여:

- **이 설교가들 (작은 형제들)의 인기와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인하여 급속히 *성 프란시스의 잔 꽃송이* 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 출현하게 되었을 것이다.**
- **1328과 1343년 사이에 몬체 지오르지오의 휴고리노와 익명의 협력자에 의해 쓰여진 the *Actus Beati Francisci et sociorum ejus (복되신 프란시스와 그의 동료들의 행적)은 "잔 꽃송이" 즉 프란시스와 그의 초기 동료들에 대한 일화들의 모음이다.***
- "그 이야기중 많은 것들이 구두나 글로 전해진 프란치스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."
- **"어떤 의미에서는 잔 꽃송이는 14세기의 프란치스칸 성자 언행록의 많은 부분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." (성자 언행록은** 2세기부터 쓰여졌었으며 독자를 가르치고 교화하며 성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.)
- 잔 꽃송이의 서론과 전 이야기를 아래의 링크에서 읽어 보시오.

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prophet/the-little-flowers-of-saint-francis/2467-fa-ed-3-page-566

그림 - 조셉 벤리얼

"잔 꽃송이에 나와 있는 프란시스와 글라라에 관한 유명한 일화중 몇 제목들: (번역 발췌: 성 프란치스코의 잔 꽃송이 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 옮김- 분도 출판사)

+ 8장: 성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와 함께 길을 가면서 참된 기쁨을 가르쳐 준 일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579]

+ 10장: 맛세오 형제가 반 농담삼아 온 세상이 성인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자, 성 프란치스꼬는 그것은 세상의 수치요, 실상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한 일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583]

+15장: 성녀 글라라가 성 프란치스코 및 그의 동료들과 함께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식사한 일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590]

+16장: 성녀 글라라와 실베스텔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께 설교로써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한다고 조언한 일. 제 3회 (재속회)의 시작과 새들에게 설교하고 제비들에게 조용히 해주도록 명한 이야기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591]

+ 21장: 성 프란치스코가 굽비오 도시의 사나운 늑대를 온순하게 길들인 일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601]

+ 24장: 성 프란치스꼬가 바빌론의 군주와 유혹하는 창녀를 회개시킨 이야기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605]

+33장: 성녀 글라라가 교황의 명을 받들어 식탁 위의 빵을 축성하자 기적이 일어나서 빵마다 십자가가 새겨진 일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624]

+35장: 중병에 걸린 성녀 글라라가 크리스마스날 밤에 기적적으로 성 프란치스꼬 성당으로 운반되어 성무일도에 참여하다. [아씨시의 프란치스코: 초기 문헌들, 3권, 624]

Artwork on the slide - Josep Benlliure 슬라이드의 그림 - 조셉 벤리얼

토론과 저널에 감상 쓰기를 위하여여

+ 프란시스와 글라라의 일화들과 그들의 기적들이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당신의 삶을 어떻게 고취시키는가?
+ 이 일화들은 당신이 읽은 프란시스와 글라라의 자서전과 어떻게 일치를 이루는가?
+ 성자 언행록의 목적은 무엇인가?